

경기미의 유통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미곡종합처리장의 벼 가공 및 판매를 중심으로

Improvement of Marketing and Distribution of Gyeonggi Rice Brand

이원석* · 정구현** · 김형덕*** · 김희동****

Won Suk Lee · Gu Hyun Jung · Hyeong Duk Kim · Hee Dong Kim

Abstract

Gyeonggi rice has been placed relatively favorable market position in the domestic rice market. With the superiority of its quality, gyeonggi rice has been well recognized to consumers. The price of gyeonggi rice has placed higher position than that of others. But, gyeonggi rice are facing crisis on the competition by regional brands. Therefore,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find the differentiated marketing strategies on problem related with the product differentiation and brand marketing of gyeonggi rice.

In order to find out how much the effort on the product differentiation of gyeonggi rice affects the price and brand recognition, fifty RPCs in gyeonggi province were surveyed. As the results, 22~23% of harvested rice which was gathered into RPC was come out 'obscurity of production origin' when we consider material hull rice in the original production territory by collecting time

* 경기도농업기술원 연구사. e-mail: born815@hanmail.net

** 경기도농업기술원 연구사. e-mail: jgh1324@gg.go.kr

*** 경기도농업기술원 연구사. e-mail: hd2121@gg.go.kr

**** 경기도농업기술원 연구사. e-mail: hd5609@hanmail.net

and channel. With comparing sales weight of gyeonggi rice by the place of shipment, agricultural cooperative channel was the highest by 44.7%. And, wholesaler comes to 17.7%, discount outlet store was 13.9%, large quantity delivery in business was 11.1%, and department store was only 5.2%. Finally, we could consider to adopt the traceability system on gyeonggi rice distribution system from production to consumers' table to get consumers' credibility and compete imported high quality rice.

주요어(Key words): 경기미(Gyeonggi Rice), 미곡종합처리장(Rice Processing Complex), 쌀 유통(Rice Marketing)

1. 서 론

쌀 시장개방 확대 및 수입쌀의 밥쌀용 시판과 한·미 FTA 등 국내 쌀 산업에 닥쳐오는 거센바람은 쌀 생산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 모두에게 커다란 위기가 되고 있다. 한편, 쌀의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쌀의 품질 고급화와 브랜드가치 제고로 수입쌀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향후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로 요구되고 있다.

경기미는 그 동안 품질고급화 및 브랜드가치 구축을 통해 국내시장의 산지간 경쟁력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기미가 오래 전부터 유지되어 온 명성 속에 안주하고 있는 동안, 타 산지쌀의 품질고급화 및 브랜드화 노력에 의해 차별화의 빛이 바래지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국내쌀 시장의 지역간 경쟁과 수입쌀과의 경쟁에서 지속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쌀의 품질관리와 소비자의 브랜드 신뢰도 제고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쌀의 상품차별화 및 브랜드화의

출발이 품질차별화로 시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경기미의 차별화 노력이 시장을 선도함에 있어 미흡함이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간헐적으로 터져 나오는 가짜 경기미에 대한 보도는 소비자의 신뢰를 더욱 하락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 지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3년과 2004년 두해에 걸쳐 총 96건에 1,290톤의 타 지역 쌀이 경기미로 둔갑 판매하여 적발된 실적을 보고하고 있으며, 주로 이천, 여주, 평택, 김포 등 경기미 명성이 높은 경기지역 시·군으로 허위 표시되어 적발된 사례들이다. 2005년도에도 가짜 경기미의 불법유통 적발사례가 많았는데, 개인 도정업자 뿐 만 아니라 타 지역 농협과도 연계되어 경기미의 명성을 추락시키고 있으며,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소비자단체들의 시중유통브랜드 평가에서 경기미가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이유는 타 지역 쌀이 상당량 경기미로 둔갑하여 고품질 경기미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경기미의 브랜드가치가 크게 하락되었기 때문이다(김영호, 2002; 안기옥, 2003). 이와 같이 경기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원료곡 유통개선에 관한 연구가 더욱이 시급한 실정이며, 그 구체적인 방향은 소비자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원료곡 유통의 왜곡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원산지나 재배기준이 일정한 브랜드의 원료량과 상품화량을 검증함으로써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 등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적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쌀의 상품차별화 및 브랜드차별화의 적극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기지역 미곡종합처리장의 벼 가공 및 판매 등 경기미 유통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경기미 원료곡의 유통 왜곡 방지를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 방안과 상품으로써 경기미의 유통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2005년도 6~10월에 걸쳐 경기지역에 소재한 미곡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경기미의 유통실태 조사와 국내쌀 산지유통에 관한 문헌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 개별방문면접조사법(Face to Face Interview), 심층면접조사법 등이다. 국내쌀과 경기미의 유통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산물유통공사 및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서울특별시 농수산물관리공사) 등의 쌀 유통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가짜 경기미의 유통과 관련된 적발사례 및 각종 제도 등을 경기도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하여 자료수집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경기지역에 소재한 미곡종합처리장의 원료곡 수집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농협경기지역본부의 자료를 협조 받았다.

한편, 경기미의 원료곡 및 상품화 쌀 출하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기지역 미곡종합처리장 50개소를 개별방문면접법에 의해 전수조사 하였다. 조사를 실시한 경기지역 미곡종합처리장은 RPC급 38개소와 DSC(저장가공시설)급 12개소이었다. 구체적 구성은 농협RPC 28개, 개인RPC 10개, 농협DSC 9개, 개인DSC 3개 이었다. 여기서 조사대상에 포함된 DSC의 본래 기능은 저장가공시설이나, 도정·가공 시설을 갖춘 곳으로 규모면에서 RPC보다 작은 미곡종합처리장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분석방법으로 경기미 원료곡의 유형별 및 시기별 유통실태 분석과 상품화 쌀의 판매처별 출하동향 및 가격대별 분포도를 도출하기 위해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제표분석, 자료 전면분석, 사례분석(Case Study) 방법 등을 활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의 목적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타지역 쌀의 경기미로의 둔갑 등 원료곡 유통상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 개선안을 모색하여 경기미의 브랜드 가치와 소비자 신뢰도의 제고를 기하는데 있다. 조사결과를 시군별로 정리하는 것은 시군 내 미곡종합처리장의 개소수가 적은 곳도 있어 경기도 전체의 대표성을 갖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조사결과를 지역별로 정리하기로 하였다. 그 방법은 경기도의 쌀 산업비중과 브랜드 성가 등을 고려하여 임의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별로 조사결과를 정리하는 것은 향후 경기도 쌀 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과 연계하여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경기도의 지역구분은 A권역으로 이천·여주, B권역으로 평택·화성·안성, C권역으로 파주·김포·고양, D권역으로 포천·연천·양주, E권역으로 용인·광주·양평의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이천, 여주와 평택, 화성, 안성은 브랜드의 차이에 의해 구분되었으며, 파주, 김포, 고양은 한강하류의 지대가 비슷한 점을 고려하였다. 포천, 연천, 양주, 용인, 광주, 양평 지대 및 브랜드 가치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3.1. 경기지역 미곡종합처리장의 조사 개황

경기지역의 미곡종합처리장(이하 RPC)의 분포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별 쌀 생산량의 차이에 따라 분포되어 있다. 이천 및 여주지역은 13개소가 있으며, 그 중 이천에만 9개소가 있다. 농협에서 경영하는 RPC(이하 농협 RPC) 12개소 개인업체에서 경영하는 RPC(이하 개인 RPC)은 1개소이다. 평택, 화성, 안성은 각 6개소씩 18개소가 있으며, 농협 RPC가 11개소, 개인 RPC는 7개소이다. 파주, 김포, 고양은 6개소이며, 파주가 4개소 김포는 1개소이다. 김포는 농협운영으로 통합RPC이다. 포

천, 연천, 양주는 7개소이며, 포천 2개소, 연천에 4개소가 있다, 용인 광주는 6개소이다, 용인과 양평에 3개소가 있다. 종합하면, 경기지역의 미곡종합처리장 50개소중 농협운영은 총 37개소이며 민간업체는 13개소이다.

경기도 지역별 원료곡 가격은 권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최고가격을 비교하면 이천, 여주가 가장 높아 65,000원/40kg이었다. 다음으로 파주, 김포 고양, 용인, 광주, 양평이 각각 59,000원/40kg, 평택 화성 안성이 58,000원/kg, 포천, 연천, 양주가 57,000원/kg으로 조사되었다. 원료곡의 최저가격은 이천 여주가 60,000원/kg으로 타지역에 비해 3,000~5,000원/40kg이 높았다. 포천, 연천, 양주가 55,000원/40kg이었으며 그 외 지역은 공히 57,000원/kg이었다.

〈표 1〉 경기지역 RPC의 지역별 현황 (2004)

권역	지 역			RPC 개소수(개소)						원료곡 가격대 (원/40kg 조곡)	
	(a)	(b)	(c)	계	(a)	(b)	(c)	농협(37)	민간(13)	최저	최고
A	이천	여주	-	13	9	4	-	12	1	60,000	65,000
B	평택	화성	안성	18	6	6	6	11	7	57,000	58,000
C	파주	김포	고양	6	4	1	1	5	1	57,000	59,000
D	포천	연천	양주	7	2	4	1	5	2	55,000	57,000
E	용인	광주	양평	6	3	1	2	4	2	57,000	59,000

3.2. 경기지역 농가의 벼 판매처별 비중

경기지역 미곡종합처리장의 원료곡 수집실태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전체 수집권역은 90,946ha로 정리되었다. 우선, 이천·여주의 수집권역은 19,587ha로 전체의 19.3%를 차지하였고, 평택·안성·화성은 40,936ha로 전체의 39.7%에 이르는 등 두 권역이 전체의 58.8%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남부지역이 북부지역보

다 경기미에서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기북부지역인 파주·김포·고양은 18,600ha, 포천·연천·양주는 11,956ha이었다. 용인·광주·양평은 11,905ha로 가장 적은 면적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경기도 쌀의 정책적 관심은 지역적으로 우선 여주, 이천, 평택, 화성, 안성에 둘 필요가 크다.

〈표 2〉에서 경기도 농가의 벼 판매처별 출하비중을 미곡종합처리장 원료곡 수집 권역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농가의 벼 판매처는 경기도 쌀의 원료곡의 유통경로를 파악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쌀의 산지유통이 미곡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추세이며 경기도의 쌀 유통개선 전략도 미곡종합처리장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경기지역 농가의 벼 판매처 중 미곡종합처리장의 비중이 높을수록 원산지 보호정책의 효과가 클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농가의 벼 판매처에 대한 조사는 경기미 유통개선의 출발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조사결과, 경기지역 농가의 벼 판매처는 미곡종합처리장이 64.1%로 절대적으로 비중이 높다. 여기에는 물론 정부수매를 대행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의 역할도 감안되어 있다. 농가벼의 미곡종합처리장 판매비중의 지역별 차이도 적지 않다. 평택·안성·화성이 72%인데 비해 타 지역은 59~61%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원료곡 판매처 조사에서 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임도정공장의 비중이 13.3%가 되고 있는 점은 유의할 대목이다. 농가의 임도정공장 벼 판매처비중은 특히 이천·여주지역이 17%, 파주·김포·고양지역이 18%로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 임도정공장은 정부의 정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으로 인해 수확기 원료곡 수집에서 미곡종합처리장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농가의 벼 판매처중 임도정공장의 비중이 적지 않은 것은 임도정공장이 부분적으로 원료곡을 수집하여 경기미의 판매에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책적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나, 향후에는 임도정공장도 유통정비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2〉 농가의 벼 판매처별 출하비중(2004)

구 분	개소수 (개소)	RPC 수집권역 (ha)	벼 판매처별 출하비중(%)						
			계	RPC	임도정 공장	벼 수집상	도소 매상	직거래	농가 자가소비
계	50	90,946	100	64.1	13.3	1.9	0.9	0.4	19.4
이천,여주	13	39,937	100	59	17	2	1	1	22
평택,화성,안성	18	18,265	100	72	11	0	0	1	18
파주,김포,고양	6	13,750	100	59	18	0	0	0	23
포천,연천,양주	7	10,620	100	61	13	7	3	0	16
용인,양평,광주	6	8,374	100	61	12	3	1	0	23

3.3. 경기미 원료곡의 원산지 구분

미곡종합처리장의 원료곡 수집은 경기미 원산지표시제와 연관을 갖고 있다. 안기욱(2005)은 미곡종합처리장의 원료곡 구매형태를 〈표 3〉와 같이 대략 7가지로 정리하였다. 구매형태는 계약재배물량, 정부산물수매 물량, 타 RPC 물량, 타 DSC 물량, 농가건벼, 정부조곡공매, 타 농협수매물량 등이다. 물론 구매형태에 따라 미곡종합처리장이 확인할 수 있는 품질관리 요소가 다르다. 또한 대부분의 미곡종합처리장은 원료곡의 수집경로별 비중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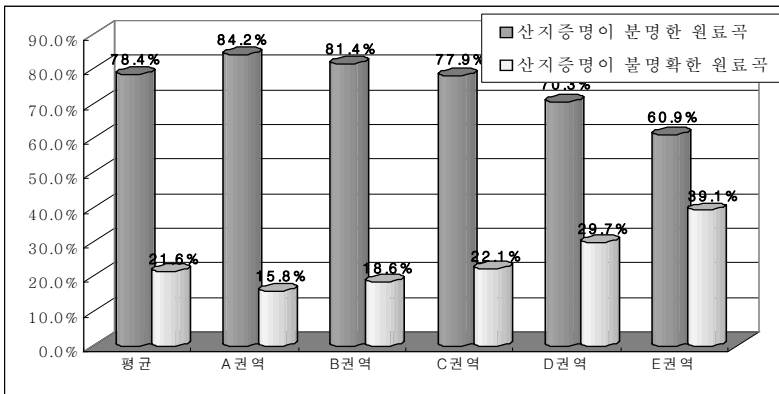
〈표 3〉 RPC의 원료곡 구매형태별 품질관리 확인여부

구매형태	산지	품종	재배	건조	저장	가공	상품	유통
계약재배	○	○	○	○	○	○	○	○
산물수매	○	△	×	○	○	○	○	○
DSC구매	×	×	×	×	×	○	○	○
타RPC구매	×	×	×	×	×	○	○	○
타농협수매	○	×	×	×	×	○	○	○
농가건벼	○	×	×	×	×	○	○	○
조곡공매	×	×	×	×	×	○	○	○

자료: 안기욱, 경기미 경쟁력 향상을 위한 토론회 자료, 2005, 경기도농업기술원

본 연구에서는 위 7가지의 구매형태를 활용하여 중 “계약재배”와 “산물수매”는 산지증명이 명확한 원료곡으로, 나머지 5가지 형태는 산지증명이 불명확한 원료곡으로 구분하여 경기지역 미곡종합처리장의 2004 및 2005 양곡년도에 대한 원료곡 수집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원료곡 구입형태별 수집실태를 조사 분석한 결과, 미곡종합처리장 원료곡의 78.4%는 원산지 증명이 분명한 것이나, 21.6%는 원산지 증명이 불분명한 수집경로에서 구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같은 결과는 경기지역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상품화되고 있는 쌀 중에서 21.6%는 경기도 원산지가 아닐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그림 1). 이를 권역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원산지증명이 불분명한 정도는 이천·여주지역은 15.8%, 안성·평택·화성은 18.6%, 김포·파주·고양은 22.1%, 포천·연천·양주는 29.7%, 용인·양평·광주는 39.1%로 나타났다.



〈그림 1〉 RPC 원료곡 수집유형별 산지증명 명확성여부에 따른 분류

한편 미곡종합처리장이 원산지 증명을 100% 신뢰할 수 있다고 한 수확기 원료곡 수집실태를 조사 분석한 결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9

월~12월까지 수집된 원료곡이 77%인 것으로 조사되어 위 수입경로별 비중과 미세한 차이를 보일 뿐이다.

농가건벼를 구매할 경우, 원산지증명이 구입 시기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즉, 농가건벼도 수집시기가 수확기라면 원산지 증명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미곡종합처리장 원료곡 수집시기가 수확기인 원료곡의 비중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이천·여주지역은 79%, 평택·화성·안성지역은 77%, 파주·김포·고양지역은 81%, 포천·연천·양주지역은 76%, 그리고 용인·광주·양평지역은 72% 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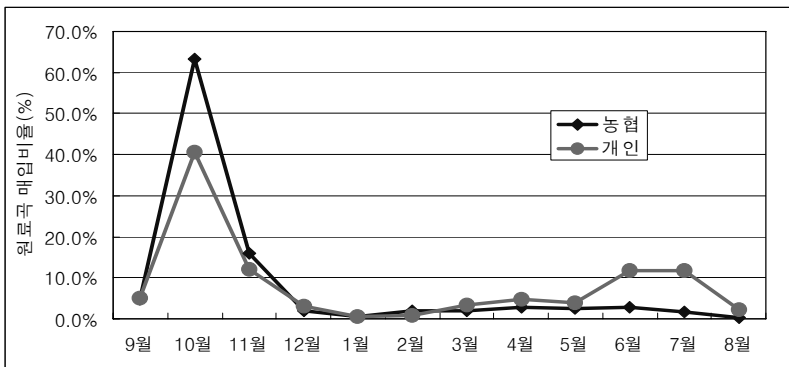
〈표 4〉 RPC 원료곡 시기별 수집실태 분석('03~'04 양곡년도 평균)

구 분	계(톤, %)	수확기(9~12월)	비수확기(1~8월)
계	295,021(100%)	228,371(77%)	66,650(23%)
이천, 여주	75,736(100%)	60,079(79%)	15,657(21%)
평택, 화성, 안성	123,971(100%)	95,619(77%)	28,352(23%)
파주, 김포, 고양	29,251(100%)	23,836(81%)	5,415(19%)
포천, 연천, 양주	37,481(100%)	28,393(76%)	9,088(24%)
용인, 양평, 광주	28,582(100%)	20,444(72%)	8,138(28%)

특히, 비수확기에 수집된 원료곡은 원산지가 경기산이 아닐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쌀을 경기미로 판매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경기미의 원산지 증명과 관련하여 경기도내 미곡종합처리장의 원료곡 수집경로를 관리하여 원산지가 불분명한 원료곡이 경기미로 둔갑 판매되지 않도록 하는 지도가 반드시 요구된다.

한편, 경기지역 미곡종합처리장의 원료곡 구매실태를 농협 RPC와 개인 RPC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면,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협 RPC은 수확기 원료곡의 수집량이 86%, 비수확기 원료곡의 수입량이

14%인데 비하여, 개인 RPC은 수확기가 61%, 비수확기가 39%로 개인 RPC의 비수확기 원료곡 수집비중이 매우 높았다. 개인 RPC의 원료곡의 39%가 수확기 이후 수집되고 있는 것은 이 정도의 쌀이 경기산 쌀이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경기도 쌀 브랜드 제고 및 고품질쌀 생산, 유통 개선에 증대한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경기미의 브랜드제고와 건전한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이 불분명한 비수확기 원료곡에 대한 상품관리가 절대 필요하다. 특히, 개인 RPC에 대해서는 더 중점을 두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림 2〉 경기도 미곡종합처리장의 수집시기별 원료곡 수집비중

3.4. 상품화 쌀 판매처별 출하실태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기지역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생산되는 상품화 쌀의 브랜드는 모두 164개로 조사되었고, 경기미의 주요 판매처는 농협유통센터 등 계통판매, 대형유통센터, 도매상, 그리고 기업납품 등으로 나타났다. 그 중 농협유통 등 농협계통조직을 통한 판매비중이 44.7%로 가장 높았다. 이는 경기지역 미곡종합처리장 중 농협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도매상 비중이 17.7% 이었고, 대형유통센터는 13.9%이었다. 산업체, 식자재 등 기업납품을 하는 경우도 11.1%를 차지하였다. 브랜드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백화점은 5.2%이었으며, 인터넷 등 직거래는 3.4%이었다. 이를 농협과 개인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농협 RPC는 농협유통조직 52.3%로 가장 높고 대형유통센터도 17.6%나 되어 판매처 비중이 높은 반면, 개인 RPC는 도매상이 50.4%, 소매상 13.3% 대형유통센터 10.5% 순으로 판매비중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판매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천·여주지역은 상대적으로 고급브랜드를 취급하는 백화점 판매비중이 15.8%로 높았으며, 대형유통센터와 도매상 비중도 높은 편이었다. 평택·화성·안성지역은 도매상 비중이 29.5%로 가장 높으며, 소매상 비중도 10.6%나 되었으나, 농협유통 비중은 23.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파주·김포·고양지역은 농협비중이 60.7%로 가장 높았고, 포천·연천·양주지역은 기업납품 비중이 18.8%로 타지역에 비해 가장 높았다. 이와같이 경기미 판매처는 대형유통센터, 농협유통조직, 백화점 등 현대화된 소매기구를 통하는 비중이 63.8%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고급브랜드의 성가가 있는 백화점의 비중은 이천·여주 지역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높지 않다. 향후 경기미의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해 더욱 현대화된 소매기구인 고급매장으로의 확대 등 유통경로 다변화를 추진할 필요가 크다 할 것이다.

또한 경기미의 판매처중 기업납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기업납품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일반적으로 기업납품 쌀은 시중쌀 보다 낮은 가격을 요구함으로써 혼합곡 등 고품질쌀이나 브랜드 성가제고와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가격위주의 기업납품 형태를 지양하고 품질위주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경기도내 기업과의 협조체제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 한 예로 지역내 기업과 지역내 농민단체, 농협, 행정기관이 협의하여 지역내 기업이

지역내 고품질쌀을 구매하도록 하는 운동을 벌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표 5〉 브랜드쌀 판매처별 출하비중

구 분	상품화 갯수	판매량 (천톤)	판매처별 출하비중(%)							
			계	대형 유통	백화 점	농협 유통	도매 상	소매 상	기업 납품	인터넷 직거래
계	164	214	100	13.9	5.2	44.7	17.7	4.0	11.1	3.4
이천, 여주	41	54	100	16.7	15.8	49.0	12.9	2.0	1.8	1.8
평택, 화성, 안성	65	92	100	19.6	4.4	23.2	29.5	10.6	8.9	3.8
파주, 김포, 고양	21	21	100	9.8	-	60.7	15.5	1.4	5.9	6.7
포천, 연천, 양주	19	27	100	14.2	4.5	43.0	14.3	4.1	18.8	1.1
용인, 양평, 광주	18	20	100	9.2	1.7	47.6	17.5	1.8	18.7	3.5

3.5. 출하가격대별 상품화율 분석

일반적으로 경기미는 타지역의 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경기미도 지역별, 브랜드별로 가격차이가 크게 나고 있었다. 그러나 경기미 브랜드의 출하물량을 감안하면 경기미의 현재 상황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표 6).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품질쌀 브랜드는 생산하고 있지만 고가격대의 쌀로 출하되는 양은 적은 편이었다. 경기미의 3,000원 이상/kg 브랜드의 출하물량은 3.4%로 집계되었다. 2,500원~3,000원/kg 가격대 브랜드의 출하물량은 21.3%이었으며 타 지역쌀과 가격차이가 크지 않는 2,000원~2,500원/kg대 브랜드의 출하물량이 전체의 75.2%에 달하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2,000~2,250원/kg대 브랜드 출하물량이 45.3%로 경기미의 많은 양이 타 지역쌀과 뚜렷한 가격차별화를 나타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이천·여주지역은 3,000원/kg 이상 브랜드의 출하

량이 6.7%이었으며 출하량의 72.5%가 2,500원~3,000원/kg 가격대로 전체 출하량의 79.2%가 고가격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평택·화성·안성지역은 96.7%가 2,500원/kg 이하의 가격으로 출하됐다. 특히 2,000원~2,250원/kg가격대의 출하량이 56.4%에 이르고 있다. 파주·김포·고양지역은 2,250원~2,500원/kg으로 출하된 양이 63.9%에 달한다. 포천·연천·양주지역은 2,000원~2,250원/kg가격대로 출하된 양이 76.6%이며, 용인·광주·양평지역은 54.1%를 차지하였다.

〈표 6〉 경기지역 RPC의 출하가격대별 상품화량

권역별	경기미 상품화량	kg당 출하가격대별 상품화량 (톤)					
		3,500원 이상	3,500원 ~ 3,000원	3,000원 ~ 2,500원	2,500원 ~ 2,250원	2,250원 ~ 2,000원	2,000원 미만
전 체	213,615	1,822	5,007	45,436	63,905	96,691	754
비율(%)	100	0.9	2.3	21.3	29.9	45.3	0.3
이천,여주	53,954	1,092	2,508	39,131	1,578	9,645	—
비율(%)	100	2.1	4.6	72.5	2.9	17.9	—
평택,안성,화성	92,224	—	845	2,204	37,180	51,995	—
비율(%)	100	—	0.9	2.4	40.3	56.4	—
파주,김포,고양	21,077	394	75	3,208	13,465	3,935	—
비율(%)	100	1.9	0.3	15.2	63.9	18.7	—
연천,포천,양주	26,745	121	—	691	4,677	20,502	754
비율(%)	100	0.5	—	2.6	17.5	76.6	2.8
용인,양평,광주	19,615	215	1,579	202	7,005	10,614	—
비율(%)	100	1.1	8.1	1.0	35.7	54.1	—

이러한 조사결과, 경기미 출하가격이 시장 평균가격대인 2,000원~2,250원/kg으로 출하되는 양이 높은 지역의 경기미는 가격차별화를 이루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따라서 경기미 전체의 브랜드성가

를 유지하고 고품질쌀 생산체계를 구축하려면 이들 지역에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쌀 생산을 특화하는 것이 한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화성·안성·평택은 브랜드의 통합과 수확후 품질관리에 집중하여 이천·여주지역과 대등한 미질을 제고하도록 추진하며, 용인·광주·양평은 기존의 용인의 맑은하늘과란햇쌀, 양평의 물맑은양평쌀 등 친환경쌀이 개발되고 있듯이 친환경쌀 재배단지로 특화하고, 포천·연천·양주도 북부접경지역과 청정지역을 연계하여 고품질쌀 재배단지로 특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6. 경기미 유통대책 및 생산이력추적시스템 도입가능성 조사

경기미의 고품질 쌀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유용한 정책의 수단으로 쌀 이력추적시스템(Traceability System)을 제안할 수 있다. 쌀 이력추적시스템은 쌀의 재배에서 판매까지 생산 및 유통 단계별 품질관리 이력의 기록과 제공이 동시에 수행되는 무선인식(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기술을 시스템화한 것이다. 최종구매자인 소비자와 바이어가 쌀의 고유번호를 매장의 리더기 또는 모바일폰 등으로 읽거나 인터넷상에서 읽어 구매를 원하는 고유번호 상품의 재배, 수확후처리, 상품화상태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력추적시스템의 구성요소로서 재배이력은 품종, 산지, 농가, 시비, 농약 잔류량, 원료곡 품질평가 등이다. 수확후처리이력은 미곡종합처리장의 원료곡과 상품화량(잔여량), 건조방법 및 건조온도, 구분저장 및 저장온도 등이 있으며, 유통이력으로 완전미율, 찌라기율 등과 단백질함량, 아밀로스함량, 지방산가 등의 식미분석평가, 도정일자(유통기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쌀 이력추적시스템 도입은 경기미가 직면한 고품질

쌀 확대와 소비자신뢰 제고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3.6.1. 생산이력추적시스템 도입을 위한 RPC의 생산기반여건 분석

쌀 이력추적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미곡종합처리장의 시설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많은 미곡종합처리장이 시설의 보완 및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쌀 이력추적시스템 중 소비자가 안심하지 못하는 부분은 원료곡 혼입과 품질관리 소홀 등 주로 미곡종합처리장의 품질관리 상태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수확후 품질관리를 맡고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의 품질관리 시설 및 기술이 일정한 기준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브랜드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료곡이 수집, 건조, 저장과정에서 혼입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미곡종합처리장의 원료 투입구가 품종별로 구분이 되도록 3개 이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고학균 등, 2005). 한편, 경기미의 경우 대부분 추정벼를 계약재배 하는 등 원료곡의 품종이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적은 편이다. 그러나 원료투입구는 품종의 혼입을 방지하는 것 뿐 아니라 물벼의 건조기 투입을 적체되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경기지역 미곡종합처리장의 원료 투입구수에 대한 조사결과,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료투입구가 1개인 미곡종합처리장이 10개소 이었다. 2개인 미곡종합처리장은 28개소로 전체의 56%이었다. 원료투입구가 1~2개인 미곡종합처리장은 수확기 물벼 구매시 물량 집중으로 인한 건조대기 시간 적체, 품종의 혼입 방지 등을 위해서는 최소 3개 이상의 원료투입구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표 7〉 원료투입구수에 따른 분포

개소수	계(갯수,%)	1개	2개	3개	4개	5개
전 체	50(100)	10(20)	28(56)	6(12)	3(6)	3(6)
이천, 여주	13(100)	4(31)	7(54)	1(8)	-	1(8)
평택,화성,안성	18(100)	3(3)	8(44)	4(22)	2(11)	1(6)
파주,김포,고양	6(100)	-	5(83)	-	1(17)	-
포천,연천,양주	7(100)	1(14)	4(57)	1(14)	-	1(14)
용인,안평,광주	6(100)	2(33)	4(67)	-	-	-

원료곡에 대한 품질평가는 현재 미곡종합처리장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미곡종합처리장은 벼 품위검사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검사원을 수확기에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벼 품질검사를 하고 있다. 다른 한 방법으로는 벼의 제현율 기준으로 원료곡을 평가하여 수매가격을 차등화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미곡종합처리장도 있다. 이러한 제현율 판정기는 현재까지 “원료곡 품질판정기”로 지칭하고 있다. 〈표 8〉에서와 같이 경기지역 미곡종합처리장 중 제현율 판정기를 보유한 미곡종합처리장은 35개소 70%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제현율 평가에 의한 차등가격을 실시하고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원료곡의 제현율 평가가 도정수율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최근에는 도정율 판정기가 품질평가의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경기지역 미곡종합처리장은 원료곡의 평가를 위해 도정율판정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한편, 성분분석기를 보유한 미곡종합처리장은 16개소 뿐이며, 34개 미곡종합처리장은 보유하지 않는 실정이다. 경기지역 미곡종합처리장이 도정율판정기와 식미분석기를 도입·보강함으로써 원료곡의 품질평가를 재배이력의 질소질 시비량과 원료곡의 도정수율과 연계하여 수매가격의 차등화를 기한다면 경기미의 고품질화 및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8〉 제현울판정기, 완전미도정라인, 성분분석기 보유실태

(단위: 수, %)

구 분	제현울판정기		완전미도정라인		성분분석기	
	보유	미보유	보유	미보유	보유	미보유
전 체	35(70)	15(30)	13(26)	37(74)	16(32)	34(68)
이천, 여주	9	4	2	11	5	8
파주,김포,고양	6	-	1	5	3	3
포천,연천,양주	6	1	-	7	1	6
용인,양평,광주	3	3	3	3	-	6

쌀의 고품질화를 위해서는 원료곡의 저장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많은 미곡종합처리장이 저장시설이 부족하여 야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야적된 원료곡은 겨울철에는 미질손상이 비교적 적으나 벼의 호흡이 시작되는 3월이후 부터는 미질손상이 크다. 그래서 미곡종합처리장은 야적 원료곡을 우선적으로 도정하여 판매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야적 원료곡의 판매가 3월이후 심지어 5월까지도 미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 미질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경기지역의 쌀 저장시설현황은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일로, 빈, 평창고를 합하여 전체 원료곡의 63%가 저장시설 내에서 저장되고 있다. 더욱이 고품질화를 위해 브랜드쌀의 원료곡은 3월이후 저온저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온저장 쌀은 단경기에도 미질을 수확기 원료곡 품위의 변화를 최소화 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고품질화를 추구하는 경기미의 경우 저온저장시설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한편, 경기지역 미곡종합처리장의 원료곡 중 저온저장 비율은 28%이며, 이 저장시설은 저온·냉각·단열시설을 포함하였다. 향후 미질하락이 시작되는 3월이후에도 수확기의 쌀 품위를 유지하여 시장경쟁력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온저장시설을 대폭 확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요구되어진다.

〈표 9〉 RPC의 저장시설능력 및 저온·냉각·단열시설

구 분	저장시설능력 (톤)				저온·냉각·단열 시설 (톤)		
	계	사일로	빈	평창고	저온	냉각	단열
전 체	188,517	107,020	21,060	60,437	20,533	27,100	36,000
원료곡전체 대비(297,620톤)	63%	36%	7%	20%	7%	9%	12%
계약재배물량 대비(160,429톤)	118%	67%	13%	38%	13%	17%	22%

3.6.2. 브랜드 제고를 위한 경기미 유통개선 방안

브랜드 쌀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혹은 단지별로 품종단일화는 필수적이다. 미곡종합처리장은 자체적인 브랜드가 3개이상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브랜드쌀의 품종을 단일화하기 위해 미곡종합처리장은 계약재배 품종의 수를 줄이고 있다. 〈표 10〉에서 보듯이 미곡종합처리장은 조사대상의 72%인 36개소가 조생종을 포함하여 1~2개 품종만으로 계약재배 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또한, 품종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쌀의 DNA 분석을 하여 평가하는 것에 대해 경기지역 미곡종합처리장의 80%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표 10〉 품종단일화 및 품종혼입 DNA분석에 대한 의견

응답수 (N=50)	RPC 계약재배 품종수			품종혼입 DNA분석	
	1~2품종	3품종	4품종	긍정적	부정적
계	36(72%)	13(26%)	1(2%)	40(80%)	10(20%)
이천, 여주	10	3	—	10	3
평택,화성,안성	15	2	1	15	3
파주,김포,고양	5	1	—	5	1
포천,연천,양주	2	5	—	5	2
용인,양평,광주	4	2	—	5	1

경기미의 차별화를 위해 재배, 수확후 품질관리, 유통 등 못자리에서 식

탁까지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력추적제 도입에 대해 <표 11>에서 보듯이 경기지역 미곡종합처리장은 82%가 찬성하였다. 한편,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은 찬성비율이 84%이며 개인미곡종합처리장은 62%이었다. 무엇보다 경기미의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해 이력추적제를 통해 브랜드 쌀 원료곡의 잔여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이력추적제 찬성비율보다 낮은 찬성율을 나타냈었지만, 50개소 조사대상중 35개소인 70%가 찬성하였고, 농협의 찬성비율은 74%, 개인은 54%만이 찬성하였다.

<표 11> 이력추적제 및 원료곡잔여량 표시제에 대한 도입여부 의견

구 분	생산이력추적제 도입여부		원료곡잔여량 표시제 도입여부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	부정적
전체(50개소)	82	18	70	30
농협(37개소)	84	16	76	24
개인(13개소)	62	38	54	46

경기지역 미곡종합처리장은 쌀 생산이력추적제 도입과 관련 중요한 이력요소로 생각하고 있는 중요도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표 12>와 같이 응답하였다. 재배이력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분야로 품종(100%), 재배지역(100%), 농약잔류량(86%), 질소질시비량(67%) 등을 선정하였다. 수확후 품질관리이력에 대하여는 원료곡잔여량표시(95%), 품종별구분저장여부(93%), 저장온도(71%), 건조온도(60%) 등을 들었다. 상품 및 유통이력에 대하여는 도정일자(90%), 완전미율(86%), 수분함수율(76%), 백도(74%), 찌라기율(67%)를 들었다.

〈표 12〉 생산이력추적시스템에서의 각 이력별 중요도 설문결과

재배이력	품종	재배지역	농약잔류	비료시비	재배기술	미량원소	정부지원
응답수	100	100	86	67	40	21	17
빈도수(%)	100	100	86	67	40	21	17
수확후 품질관리이력	품종별 구분저장	원료곡 잔여량표시	저장 온도	건조 온도	고수분벼 구분건조	건조대기 시간실태	
응답수	93	95	71	60	52	24	
빈도수(%)	93	95	71	60	52	24	
상품이력	도정일자	완전미율	수분함수율	백도	분상질립율	색도	지방산가
응답수	100	100	86	67	40	21	17
빈도수(%)	90	86	76	74	38	14	14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타지역 쌀의 경기미 둔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생산하는 경기미의 산지증명 뿐 만 아니라 원료곡 수집량에 대응한 상품화량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원산지를 둔갑한 가짜 경기미가 판매 적발된 사례가 방송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인식됨에 따라 국내에서 그동안 인지도가 높았던 경기미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따라서, 경기미 명성에 부응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미곡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생산이력추적시스템(Traceability System)기술을 적용하여 경기미의 원료곡 잔여량 표시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산지증명과 품질관리가 명확한 원료곡을 미곡종합처리장 입고시 부터 관리하여 총입고량 대비 출하되는 쌀의 잔여량을 포장재에 표시해 줌으로써 산지증명이 명확성을 소비자에게 부각시킨다면 고품질 경기미에 대한 신뢰도 뿐만 아니라 회소성도 높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4.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 쌀 산업은 소비량의 지속적 감소추세와 수입쌀 도입 증가로 인해 재고량이 누적되는 등 과잉공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04년 쌀 재협상 결과 시장개방의 확대 및 밥쌀용 수입쌀 시판은 국내쌀 산업의 입지를 더욱 좁아지게 하고 있다. 또한, 국내 쌀 유통 및 소비의 체계가 공급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지역간 브랜드 쌀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그동안 경기미는 브랜드 가치 구축을 통해 국내시장의 경쟁력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여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쌀로 인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타지역 브랜드쌀 들의 품질개선 노력과 지역단위 브랜드 마케팅 전략에 의해 급부상하는 가운데 경기미는 과거 명성 속에 안주하면서 상대적으로 품질고급화, 마케팅에 뒤처지고 있고, 가짜 경기미의 부정 유통행위와 품종 혼입 등으로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미가 국내 쌀 시장의 지역간 경쟁과 수입쌀과의 경쟁에서 지속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품질관리와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조사결과 원료곡 단계에서의 경기미 품질관리의 주체인 미곡종합처리장이 산지증명이 불명확한 원료곡을 전체수급량의 22%정도나 취급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에 대응하여, 경기도는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대응책으로 부정유통 감시 및 보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경기미의 원산지 부정 유통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쌀 생산이력추적시스템이 하나의 대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경기지역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유통되는 브랜드쌀의 판매처별 출하비중과 가격대별 출하물량을 조사한 결과 경기미의 많은 양이 타 지역쌀과

뚜렷한 차별화를 나타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처별 출하비중에서는 농협계통을 통한 판매비중이 44.7%로 가장 높았으며, 도매상이 17.7%, 대형유통센터가 13.9%, 기업납품 11.1%, 백화점 5.2% 순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가격대별 출하물량에 있어서는 고가격대인 kg당 3,000원 이상의 출하 물량은 3.4%이었고, 2,500원~3,000원/kg 가격대 브랜드의 출하물량은 21.3%이었으며 타지역 쌀과 가격차이가 크지 않는 2,000원~2,500원/kg대 브랜드의 출하물량이 전체의 75.2%로 가격으로 나타난 차별화 효과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브랜드 쌀에 대한 소비자 구매행태 및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경기미 상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으로 유통다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경기미의 품질고급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미곡종합처리장 수확후 관리분야 기반조성에서 품종혼입 방지, 원료곡 품질등급화, 고품질 완전미 생산기반이 미흡한 실정으로 품질고급화 시설기반조성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미곡종합처리장의 자구 노력이 요구되어진다.

■ 참고 문헌 ■

- 고학균, et al. (2005). 농협RPC 고품질쌀 생산체계 구축 및 구조조정 촉진방안. 경기도. (2005). *쌀품질 고급화 대책 토론회*.
- 경기도농업기술원. (2005). *경기미 경쟁력 향상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김영호. (2002). 경기미 유통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쌀회 총서*, 13, 182-216.
- 김완배. (2003). 쌀 재협상에 대비한 기술적·정책적 대응방안. *한쌀회 총서*, 14, 1-30.
- 김철호, et al. (2000). 지역브랜드 쌀에 대한 소비자 반응분석과 판매전략. *식품유통 연구*, 17(1), 1-16.
- 농산물품질관리원. (2004). *2004 작물통계*.
- 박동규, et al. (2003). *농가의 미국유통 실태 분석*.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평식, et al. (2005). 쌀 품질과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개선방안. *농업경영·정책연구*, 32(3), 427-446.
- 서종혁, et al. (1993). *쌀의 지역별 차별화 전략*.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_____, et al. (1998). *농산물 차별화 소비자 지향형 농업의 활로*. 서울: 농민신문사.
- _____, et al. (2002). 고품질 차별화 쌀의 시장과 전망. *한쌀회 총서*, 12.
- 손종록, et al. (2004). 생산이력제 도입을 위한 선결과제 및 영농기반 개선. *한쌀회 총서*, 17, 83-107.
- 안기욱. (2003). 고품질 쌀 소비지시장 마케팅 전략. 한국농정신문 세미나 자료, 67-91.
- _____. (2005). 쌀 수입개방에 대비한 품질관리 및 경기미 브랜드화 전략. 경기도농업기술원.
- 윤석원, & 이대훈. (1999). 수확후 산지 쌀 관리 및 유통구조의 변화와 발전방향. *농업경제연구*, 161-189.
- 윤석원, & 김근영. (2002). 쌀 유통실태 및 개선방향. *한쌀회 총서*, 13.
- 윤석원. (2004). 쌀 품질고급화를 위한 정책방향. *한쌀회 총서*, 16, 132-158.
- 이계업, et al. (2003). *쌀 소비행태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_____, et al. (2004). 쌀의 품질과 가격에 대한 소비자 평가 분석. *농촌경제*, 27(3), 21-33.

- 이병서, et al. (2004). 국내 농산물 생산이력제 도입을 위한 기반조성방안. *한쌀회 총서*, 17, 33-60.
- 이원우, 정구현, & 유병서. (2000). 경기미의 브랜드 특성 및 상품차별화 연구. *식품유통연구*, 17(3), 81-95.
- 이정희. (2003). 농축산물 브랜드화의 개선방안. *농업경영·정책연구*, 30(1), 18-34.
- 장치진, et al. (1996). 전북산 쌀 상품차별화에 관한 연구. 전북농업기술원 연구보고서.
- 정홍우. (2004). 상품화 쌀의 산지중심 유통현황과 발전방향. *한쌀회 총서*, 16, 75-131.